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획을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적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려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재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재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람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재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재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뭇기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재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흑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와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 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러있었고 이들은 한국 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뒤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재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가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여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기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퇴계 이황이 현감으로 머물렀던 도시, 옛 단양
The town Danyang, a place for whang-lee was mayer
6. 선비들의 계획(契畵)장소 삼선수석로(參塹水石路)
A meeting place for Chu-tz scholars, the Samsunsuk road
7. Walking space, 운계 구곡로(雲溪九谷路) Walking space, the Ungaegugok road
8. 봉화대로의 고개, 죽령 A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ng
9. 죽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
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풍기현과 사림 The Chu-tz scholar in f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 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이건축에 근무하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함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향교

-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

향교로 가는길

오늘부터 그동안 틈틈이 조사 메모해왔던 것들을 직접 걸으면서 다시 보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다시 종합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첫 번째 답사대상을 단양향교로 택한 것은 퇴계 이황이 단양현감으로 재임하면서 하방리에 있었던 향교를 현재의 위치로 옮긴 사실이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 일에 대한 대강의 근본이나 곡절이 어떠한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잠깐 동안이나마 뜨끈한 구들의 위풍에 눌린 몸을 다시 지져서 그런지 행선지를 미리 정한 탓인지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겨울이 워낙 깊어 가는지 새벽이 깨어, 닭이 여러 번 홰 울어 제치고 실음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뜰 참이 다되었는데도 장지문 아래 틈새로 엄습해오는 스산한 한기는 여전했다. 옷을 추스르고 바깥 한기가 어떠한지 궁금하여 잠깐 뒷돌에 내려서자 강변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난 안개가 아직도 마당 그득히 얽게 퍼져 흐르고 있었다.

서릿바람에 겹겹이 싸인 신 새벽의 숙무(宿霧)가 내몰리듯 향교에 관한 나의 기억이 퇴계 이황의 이십대 후반 이력을 날날이 훑어 내려가자 희미한 그의 학력의 내용들이 점점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궁금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비란 누구인가 하는 물음으로 줄기차게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워낙 내가 글재주가 부족한 탓에 밀려드는 생각을 속 시원한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워 길을 나서기 전에 우선 향교부터 정리해 보기로 했다.

향교, 일찍부터 내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향교란 국초부터 나라에서 시행한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의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유교의 대중화 교육을 하기 위하여 태종은 재위 13년, 1413년 향교의 수학(修學) 성과를 수령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군현에 이르기까지 1개소씩 고루 배치된 향교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학전(學田)을 지급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일종의 중등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한양의 양반 자제들과 향촌 곳곳에 산재한 재지사족들의 자녀들은 서당에서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글을 익힌 다음 바로 경(京)내 각 부에 설치된 사학(한양의 동, 서, 남, 중부에 세운 학교), 읍내에 있는 향교로 진학하여 과거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사학과 향교는 과거의 첫 시험 소과(小科)를 준비하는 예비학교였던 셈이다. 당시 이들은 생원과와 진사과(進士科)로 나누어진 소과를 보아야 했는데 이 시험은 3년에 한 번,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1차 시험인 초시(初試)는 상식년(上式年: 寅·申·巳·亥年) 가을에 시행하는데 한성시(漢城試)에서 이백 명, 지방 향시(鄕試)에서 칠백 명을 뽑은 다음, 이듬해 식년(式年: 子·卯·午·酉年) 봄 서울에서 2차 시험인 복시에서 최종적으로 백 명을 뽑았다. 이렇게 복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세종은 재위 20년 1438년부터 합격증서로 백패(白牌)를 하사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원진사라 부르며 선비로 존경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양반들은 왜 글을 쓰고 소과에 급제하려 했던 것일까.

소과에 급제해야만 성균관에 입학하여 장차 문과에 응시, 대과 급제한 뒤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혹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하급 관원으로 입사(入仕)하거나 참봉·훈도·오위장 등 종9품직에 제수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진짜 양반 행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양생원, 김생원, 이생원 또는 정진사·김진사·박진사라 불리는 이들은 비록 호칭이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당시만 해도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앞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로 소도나무를 높다랗게 세우고 그 마을을 지나는 행인들은 설사 말을 타고 간다하더라도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살인죄 이하의 죄는 설사 눈앞에서 서슴없이 저질러도 체포나 감금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다.

과거 급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조선천지의 자유인으로서 치외법권적인 특권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으름장에 시정배들이 무릎 꿇는 자리를 찾을 정도로 자신의 신분이 격상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아무리 양반 피붙이라 해도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선비로서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야망이 일종의 양반 자격시험에 불과한 바로 이 소과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생원·진사¹⁾ 합격자의 수가 많

1) 조선 초기에는 반대로 생원시를 중시하여 한때 진사시를 폐지한 적도 있으나 단종 때 부활되면서부터는 진사시가 중시되자 진사라는 호칭이 통속적인 선비의 호칭으로 보편화되어 구별 없이 생원, 진사를 부르게 되었으나,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부르는 말로 변해갔다.

아지자 중앙의 문벌 양반에게 밀려 지방 양반들의 문과 합격의 기회가 제한되자 소과는 지방양반들의 신분적 지위를 재확인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스스로 소성(小成)이라 했던 이들은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중심인물이 되면서 그들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한 끈에 매달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독서를 바탕으로 향촌에서 장원을 이루기 시작하자 이들 가슴속에 서서히 사림의 마을과 도시의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세(勢)가 향청을 중심으로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기득권을 지닌 권문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불안해질수록 대립각은 첨예로워지기 시작했다. 하늘아래 두개의 봉화불이 켜진 탓이다. 한양에서 이미 지퍼 올린 훈구의 햇불은 전국을 향해 타올랐으나, 향촌에서 지퍼진 햇불은 훈구의 불 그늘 아래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며 하나, 둘씩 마을로 마을로 그늘진 곳을 밝히며 퍼져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정세를 아랑곳없이 가뭄에 콩 나듯 뽑는 대과에 급제하려고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엉덩이를 붙이고 들어앉아 조선전기 벼슬길을 찾아 나선 선비들이 상당수 있었다. 3차에 걸친 시험을 보아 갑·을·병 3과로 나누어 등급을 결정하는 대과, 갑과 장원 급제를 해야 종6품의 참상관(參上官)을, 병과 합격되어야 정9품의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들이 바로 사림이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비가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그가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한 것은 1523년(중종 18)의 일이고, 진사가 된 것은 1528년이었으며, 정작 과거에 급제한 한 것은 1534년 식년문과(式年文科) 을과(乙科)였으므로 한양에 살았던 숙부 이우(李堉)에게 12살 때부터 학문을 배우던 그는 사부학당을 거치지 않고 성균관에 무려 11년간 머무르며 공부를 했던 셈이다. 그는 성균관에 입교한지 5년이 지나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진사가 된지 6년 만에 3년마다 치루는 식년대과에 급제하였으니 매년 응시했다면 퇴계 이황은 두 번 낙방하고 세 번째 합격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 한 가지 말을 꺼내기 거북살스러웠던 점은 그는 진사도 되기 전에 이미 성균관에 입교했다는 점에 있었다. 소과에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균관을 그는 진사도 되기 전에 그냥 입교한 셈이다. 만약 그가 제대로 절차에 따라 성균관에 입교했다면 그는 1523년 그의 나이 23세 때 이미 생원, 진사가 되었거나 1528년 진사가 된 후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퇴계 이황의 학문적 권위와 인물의 역사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 물음은 내 앞을 아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음이 초조해진 나머지 혹시 나의 우문으로 잘못하면 그의 명예에 오점을 찍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전전긍긍하던 나는 긴 숨으로 마음을 타이른 다음 조사해온 조선 전기 사학에 대한 정보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렵풋한 기억을 헤 짚고 첫눈에 읽힌 것은 한양에 학당을 만들

자는 학제를 제의한 한 것은 1411년 예조참의 허조(許稠)였다는 사실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사학 이야기는 처음 동서학당만으로 시작된 학당제는 차츰 제도가 정비되면서 부마다 학당을 두게 되었으나 북부에는 학당을 두지 않아 사부학당, 또는 사학(四學)으로 불리게 되었고, 독립학사를 처음으로 건축한 것은 1411년(태종 11) 남부학당이었는데 그 뒤를 이어 중부학당이 1432년(세종 4) 관광방(觀光坊 : 지금의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서부학당은 1435년 서부여경방(餘慶坊 : 지금의 종로구 광화문)에 동부학당은 학사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38년 동부학당을 북평관(北平館)으로 바꾸고 동부 창선방(彰善坊 :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병원의 우유소(牛乳所) 건물)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로 이어지면서 당시 각 학당 교원은 종6품 교수 2명, 종9품 훈도 2명을 있었는데 정6품직인 성균관의 전적(典籍) 이하 관원들이 겸직했고 학생 정원은 백 명이었고, 입학자격은 양반·서민의 자제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 진사나 생원과에 응시할 준비교육을 시켰는데, 반 편성은 5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20명씩 배치한 뒤 10일간 거학(居學)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사학의 교육내용은 성균관과 비슷하였으나 다만 평가에 있어서 매일 학생들이 읽은 글을 강(講) 받아 그 성적을 정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의 눈초리를 훑어보며 자료를 읽어 가던 내 눈가에 짐짓 다가오는 문장은 학당제의 특별한 점은 15세가 된 학당 생도 가운데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점과 성균관 정원의 절반인 하재생(下齋生) 백 명이 학당 출신으로 채우게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였다. 한술 더 떠 또 각 학교에서 우수한 유생 20명을 뽑아 남학(南學)에 모아놓고, 예조에서 강론과 제술(製述)로써 시험하여 10명을 뽑아 생진복시(生進覆試)의 응시자격을 주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이는 사학에 대한 대단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놀랄 일은 어디 그 뿐만이 아니었다. 고관자제에게는 문음승보(門蔭陞補)의 혜택은 한술 더 했다. 1413년 3품관 이상의 자제는 4서와 1경(一經)만 강경(講經) 시험을 보아 조(粗 : 句讀과 訓釋)를 틀리지 않고 대의를 아는 수준으로 강경시험 평점의 가장 낮은 단계(입) 이상이면 성균관에 진학하게 했던 것을 나중에는 사대 조(四祖 : 父·祖·曾祖·外祖) 안에 3품 이상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 있는 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학당에서 매달 치르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자는 생원진사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으며, 매년 6월 사학에서 20명씩을 선발하여 보는 회시(會試)에서 우등한 10명도 생원진사시의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사학과 성균관이 은밀히 내통하고 있는 점을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면 사학은 벼슬에 오른 자나 오르려는 자나, 심지어 여염 백성들까지 모두 덩달아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12살 때 그를 가르쳤던 이우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 1469~1517(예종 1~중종 12)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재(松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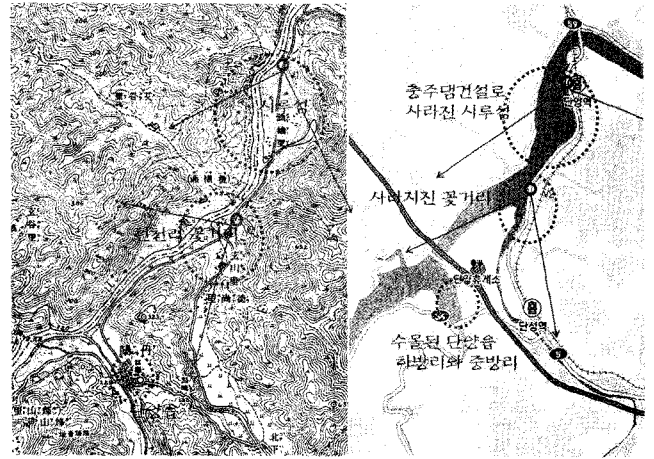
본관은 진보(眞寶)였던 이우는 이황(李滉)의 숙부였다. 그는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이조좌랑·사간 등을 지낸 사람으로 그가 1506년 동부승지로 있을 때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가담,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에 녹훈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진 바 있었다. 그리고 1508년(중종 3) 진주목사로 있었을 때 선정을 펴 표리(表裏)를 하사받았으며, 이듬해 호조참판 등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부모봉양을 이유로 사퇴한 바 있었고 1514년 김은(金銀)이 상소로 중종반정 때 공신에 녹훈된 것을 문제 삼자 삭직되었으나 이듬해 안동부사에 복직되었던 것이다.

그는 퇴계 이황이 성균관에 입교할 무렵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입궐채비를 했던 특색한 권문세가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이황의 숙부였다는 사실과 함께 사학과 성균관의 관계,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청년기 퇴계 이황은 사학에서 공부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진사가 되기 전에 성균관에 입교한 일은 그다지 이상한 사건으로 볼 것은 전혀 아니었다. 무심코 지나친 이런 역사적 맥락을 할끗 엿 본 사실을 병어리처럼 보고도 못 본 체, 듣고도 못 들은 체 오불관인(吾不關焉)하라면 누구라고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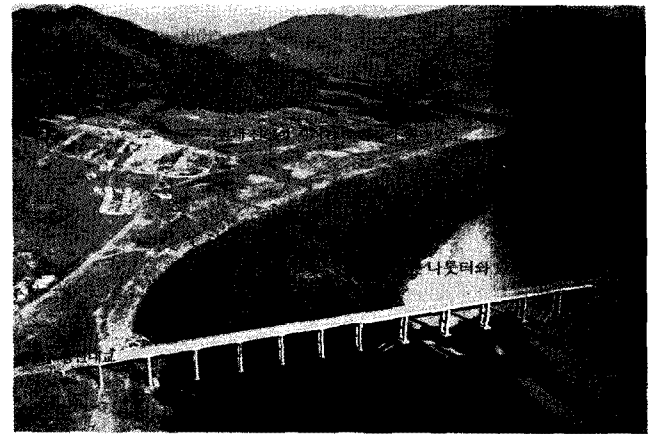
아무튼 군관에서 11년간 공부했던 그는 후일 성균관의 으뜸 벼슬인 정3품의 당상관인 대사성을 지냈으므로 조선전기 학제를 대표할만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나는 단양읍 구조를 살펴보는 일 보다 먼저 그가 이룩한 향교를 찾아가려는 것은 조선 전기 교육시설의 흔적이 혹시 천행으로 남아있는지 어디 한번 조사나 해보자는 심사가 앞서서였다.

기운이 떨어지면 강물 속에서 피어올라 강변 가득 채웠다가 동녘이 밝아오면 햇살에 쫓겨 다시 산속으로 숨어들어 자취를 감추곤 하는 안개처럼 지난 역사에 대한 궁금함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참, 마당가 풀 섞에 된서리가 많이 내린 것을 보니 해 낮에는 오랜만에 따뜻해질 것 같았다. 자그만 장지문을 여닫을 때 마다 나는 빼격거리는 소리 그마저 정겨운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골의 정취였다. 아니 사라져버린 자연의 모습과 어우러져 잊혀진 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한 사나흘 더 머무를 요량으로 행장을 추슬러 대문을 나선 나는 문밖 한터에 세워둔 차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강 건너 실음산등이로 희묘한 미명이 물어 오른 새벽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노송들이 들어선 별곡마을 입구를 나서자 남한강 들녘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 강바람이 차고 매섭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강을 건너 실음산 자락을 가르고 난 길로 부지런히 걷는다면 현천리를 지나 옛 단양읍까지 점심 전에 대어 갈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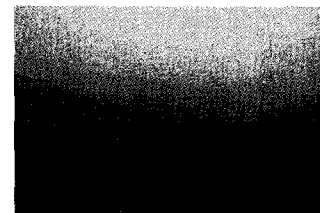
상진대교를 막 건너자 길옆 아래 펼쳐진 증도리 들녘이 눈에 들어왔다. 만약 이곳이 아직도 총독부 지도에 그려진 대로 남아있었다면 나는 지금 저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백사장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어느 한순간인들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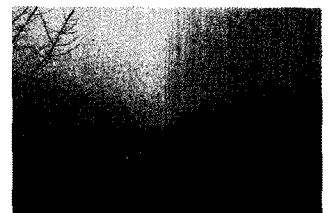
(그림 1) 1910년과 2010년 단양지도 비교



(그림 2) 상진대교 1974년



(그림 3) 꽃거리에서 본 시루섬



(그림 4) 시루섬에서 본 성재산



(그림 5) 1970년대 현천리 꽃거리

게 잡아낼 수 없으면서도 엄연하게 다가오는 상진리 일대 자연풍광의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변화를 체험하며 행복감에 젖어 남한강변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1980년대 실음산자락을 잘라내고 만든 포장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은 걷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달리는 자동차를 위해 만든 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행자를 위한 길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 곳은 농촌이나 산촌이 아니라 도시이다. 그 탓인지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시골길을 걷는다는 것은 한사람이 겨우 지나 칠 수 있는 길섶을 보도삼아 자동차 길을 걸어간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도 걷는 만큼 자연 속에 스스럼없는 족적이 남겨졌고, 걸은 거리만큼 거칠어진 호흡 속에 그동안 무의식과 망각 속에 감추어진 내 자신 살아갈 삶의 원형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대동여지도를 들고 이곳 자연과 역사경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일은 곧 삶의 모습 본보기를 찾는 일이라는 것이 절감되기 시작했다.

민박집을 나서서 상진다리 건너 단양역을 지나 심곡리까지 걸어가는 동안 소매와 깃발을 스치는 바람이 만만치 않았다. 심곡터널을 왼편으로 성재산을 바라보고 실음산 능선 밑뿌리를 따라 굽이 돌아 가는 5번 국도를 따라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마침 붙어오는 강풍으로 바짓가랑이가 뚫이라도 되는 듯 펄럭이자 걸음은 마치 배가 강심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길을 가르고 간다.

강변을 타고 멀리로 사라지는 시루섬 뺨 발가에 우거진 잡목 숲과 강 건너 현곡리 애곡리 구릉은 강물에 반사된 겨울 별으로 뻗어 나간 듯이 뱃바닥처럼 반질거렸다. 원래 단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은 주변경관이 워낙 좋은 탓도 있었지만 두 섬, 도담 삼봉과 시루섬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도담 삼봉은 세 개의 바위로 조성된 작은 섬으로 강심에 오뎅 서 있어 기풍이 뛰어나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모래밭으로 뛰어난 시루섬은 소나무 숲과 여울목, 쏘갈바위, 셋강의 고기잡이가 김일손과 이항 그리고 그의 제자 황준량의 발길을 묶어둘 정도로 옛 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시루섬의 자랑거리이기에 그치지 않았다. 옛 부터 이 섬에는 뽕나무가 많아 양잠이 성했고 땅콩재배가 잘되어 이것을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 웅기종기 강마을을 형성하여 모여 살았다. 더구나 이곳은 수륙교통의 요지였으므로 무시 때로 사람들의 왕래가 번다했다. 그런 까닭에 삶의 때가 가득한 이곳은 단양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랑했던, 늘 가보고 싶어 했던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5리 길 빼듯한 아랫녘 현천리 강 건너 애곡나루와 연결된 선창머리들에는 뗏목 배와 소금 배 그리고 시선(柴船)과 생선 실은 고깃배들이 열을 지어 늘어져 있었다. 특히 이곳은 죽령길이 단양천을 따라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으므로 영남에서 죽령을 넘어온 장들림이나 영남주상들 그리고 관동의 객상들이 배를 타고 한양으로 물나들 가는 일종의 관문으로 물화가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강 건너 애곡리에는 수양개 유적을 비롯한 성터와 유물산포지가 강을 따라 늘어져 있었고 현천리 윗녘에 고려 때 유교를 받아들인 순흥 안씨 집성촌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은 옛 부터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수륙교통의 요지가 발달한 곳임이 분명했다. 그런 탓인지 한 백 여 년

전 만해도 시루섬과 단양읍 사이에 자리한 현천리 윗머리 쪽 술청 거리는 배가 들어올 때가 되면 한길바다에 합지박이나 모판 들상을 내다놓고 밀전병이나 백설기에 수수장떡을 파는 떡장수들과 들병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줄기차게 길손을 부르며 장시를 이루곤 했다.

멀리 행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잔술이라도 팔아보려고 소리치고 손짓하는 조방꾼과 색기로 가득한 이곳은 계집생각으로 막창이나 창기를 찾기 웃거리는 패거리들, 한두 달은 보통이요 재수 없으면 일 년 넘게 계집 맛을 못 본 장들림들이 만사를 제치고 화초방을 찾는 버릇 때문에 북새통을 이루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시선이 물나들이 할 때마다 배를 대어 행매를 하거나 한양에 생선을 대는 고깃배, 소금배, 장작을 대는 야거리 장작배가 몰려오면 선창머리에 늘어선 솟막과 주막 술국집은 제법 해반주그레한 얼굴을 내밀고 잔술과 함께 몸을 팔던 창기와 그들을 찾아온 두둑한 주상과 선객들의 하룻밤 신명 떨음을 위해 들썩해지는 밤 문화를 상징하는 유곽 흥등가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길 가냘에 우거진 상판을 하고 바람을 안고 걸어오는 사람들만 이따금 보일 뿐 시루섬 어름을 지나 현천교에 이르기까지 인적이 뜸했다.

퇴계 이항이 단양학교를 이축(築移)하게 된 이유

숨차게 길을 죽였던 탓인지 단양석회 앞을 지나 현북교를 건너 옛 단양에 도착하였어도 늦은 아침계박에 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현천리에서 죽령 천변으로 내려가 내를 건너 곧장 읍내로 질러 들어가 향교로 가거나 왼편으로 성재산 동쪽 자락에 바짝 붙은 도드락 길을 따라 죽령을 바라보고 한 십리 남짓 부지런을 떨어 갈대가 무



(그림 6) 1910년 단양읍내면 지형도

성한 개활지 사잇길을 피해 오른편 고갯길을 택했을 것이다. 이 가파른 고개 길을 열고나계 올라서면 비로소 발아래 단양읍내와 남한강의 풍광을 보게 된다. 불과 삼십년 전만해도 이 고개를 넘어 영남으로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수월치 않았을 터인데 향교 앞 내리막 큰길에 들어섰어도 이곳 역시 사람의 왕래가 뜸했다. 가파른 산길을 내쳐 오른 탓인지 등줄기엔 땀이 후줄근했고 설 참 없는 길 물이 한 까닭에 나는 늦재 설 참에서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예서 잠시 숨을 돌리고 길을 내려서 길 모퉁이를 돌아 서면 퇴계 이항이 하방리에서 읊었다는 단양향교가 나타난다.

차가운 강바람이 폐부를 찌르자 헛기침이 난다. 나는 배낭과 카메라를 내려놓고 길섶 바위위에 걸터앉았다. 도전리를 떠난 지 세 시간 남짓 지났을까, 고개를 드니 산비탈에 길길이 자란 노송이 무성했고 왼편 두약산자락과 봉수가 있었던 소이산이 성큼 다가와



(그림 7) 늦재에서 본 단양읍 전경



(그림 8) 의 중방리에서 본 1930년대 단양

보이고 아릇한 현기증과 함께 강 건너 금수산과 천계봉 자락 아래 애곡리 벌판이 멀어져 갔다. 사실 내가 현천리에서 곧장 단양읍내로 들어서는 성재산 재간 길을 버리고 늦재로 길을 잡은 것은 나를 대로 까닭이 있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단양읍내에 대한 정보를 대략 정리한 탓에 옛 도시구조를 답사하는데 별 어려움 바는 없었으나, 우선 궁금했던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퇴계 이황과 직접 관계가 있는 향교의 잔형을 조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줄창 뇌리에 가득했던 터였고, 효율적인 답사를 하려면 날이 저물기 전에 볼 수 있는 것부

터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심산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배낭에서 수통을 꺼내 물 한 모금 마시자 뿔어져 나온 잔 숨결로 허공에 서린 하얀 입김 사이로 그동안 길 몰이에 정신없어 뒷전으로 내몰렸던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역사적 배경이야 어쨌든 현재 충북유형문화재 10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단양향교를 옮긴 사람이 당대 유학교육의 총 책임자이자 성균관에서 잔뼈가 굵은 퇴계 이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아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그가 단양현감으로 8개월간 재임하면서 향교를 옮긴 사실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건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어진 건물을 뜯어 옮기는 이축(移築)은 헌집을 뜯어내고 새로운 곳에 터를 닦아 날은 부분은 수선하여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축하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짓는 경제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상례였다. 설사 낡은 부분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옥의 기둥과



(그림 9) 단양향교 1972년



(그림 10) 단양향교 2010년

창방의 사개맞춤은 위낙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 탓에 아무리 잘 해체 한다 하더라도 손상되기 십상이었고 건물의 벽체와 바닥 운돌, 실 내부 마감은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다시 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틀어진 창호를 다시 맞추려면 일몰이 적지 않게 들었고 깨지는 기와 등 부재 손상을 보완하는 일에도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들었다. 더구나 허방리 평지에 세워져 있던 향교 건물들을 경사가 심한 산비탈인 현 위치로 옮겨 세우려면 입지조건이 달라져 구조변경이 불가피했다. 결국 건물의 이축은 구조체인 기단석과 초석, 기둥

- 2) 조선시대 이후로서의 향리는 사족과 같이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향리는 대체로 호장·기관·장교·통인으로 조직되었다. 호장은 고려 아래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도 향리직의 최고위를 의미한다. 호장 직에는 수호장(首戶長)·두호장(頭戶長)·제2호장(第二戶長)·부호장(副戶長) 등 기타 여러 가지의 위계를 가진 명예직의 이름도 주어졌다. 지방행정 조직은 중앙의 육조(六曹)조직을 모방하여 이·호·예·병·형·공(방)으로 나누어 그 직무를 분담하였다. 향리는 아전이라 불리며(諱禁, 크기로 볼 때 향리는 아전에 속하나, 아전이 모두 향리는 아니다. 아전 가운데 외아전이면서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하급관리를 하는 사람을 향리라 한다.) 6방의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위로는 지방관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상민층을 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두 계층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민 위에 군림하여 착취하는 부패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향리의 인원을 조정 관리하지 않고, 오직 향리의 면역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향리의 기본 업무는 통치기구 발달에 위치하여 직접 생산자인 상민들과 접촉하여 조세·공부(貢賦)의 수납과 역(力)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에 향리 직무인 향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세습하는 것을 관례 또는 의무로 하고 있었고 일반서무로서 조세·공부의 징수와 요역(徭役)의 동원, 그리고 송사(訟事)의 처리 등을 행하였다. 징집한 조세와 공물을 도성으로 운반하여 각 창고 관사(倉庫)에 납입하는 조운도 담당하였다. 한편,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에 상반입역(上番入役)을 하기도 하였다. 기타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의 이직과 역도 각지의 향리가 교대로 임명되어 담당하였다. 또 각 읍은 도성에 경저(京邸)를 두고 중앙과 각 사와의 연락, 조세·공부의 상납, 상반하는 경역리(京役吏)·선상노비(選上奴婢, 중앙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지방에서 보낸 노비의 취역 알선, 상경한 지방 관리의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경저의 관리·운행하는 관리인 경저리(京邸吏)도 각 읍의 향리가 맡혀 상경하여 담당하였다. 한편, 향리들은 각 읍에 부임하여 오는 경관·지방관 등의 영접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였다.
- 3) 조선 초기 지방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 향사당(鄉射堂)·유향청·향소청·향당 등으로도 불렸다. 고려 때의 사심관(事審官) 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유향품관(留鄕品官) 또는 한량관(閑良官)이라 하여 지방의 유력자나 벼슬에서 은퇴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향리(鄕吏)와 관노비의 불법을 규찰함과 동시에 불효와 불목(不睦) 등을 감찰하고 관의 위세를 밟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탄핵하여 향풍(鄕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향소의 유향품관들은 실직은 아니지만 품계 상으로는 오히려 수령보다 높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령에 대한 능멸행위가 자주 일어나 1406년(태종 6) 중앙집권정책의 일환으로 수령권을 강화하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그 뒤 수령의 불법행위, 향리들의 폐단 등이 향촌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자 1428년(세종 10) 다시 부활시켜, 교활한 아전과 간교한 백성을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는 일반 전담하도록 하였다. 1435년에는 경제소(京在所)제도를 정비, 유향소를 견제하자, 유향품관들은 자기보호를 위해 관권과 타협,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호 보호적 불법행위를 조재하여 향촌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말, 한때 폐지되었으나 관리들의 능간이 심하여, 1489년(성종 20)에 지방풍속의 조정과 향리규찰을 위하여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을 두고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임원은 향임(鄕任)·감관(監官)·향정(鄕正)이라 하여 주(州)·부(府)에는 4~5명, 군에는 3명, 현에는 2명씩을 두었으나 뒤에는 점차 증가되었다. 이들은 향사인(鄕士人) 중에서 나이가 많고 인망이 있는 자를 좌수, 그 다음을 별감으로 선거에 의해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대개 2년이었으나 수령이 바뀌면 다시 뽑기도 하였다. 이들의 직임(職任)은 6방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방·병방, 좌별감이 호방·예방, 우별감이 행방·공방을 맡아 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때는 교활한 아전과 간교한 백성을 규제하거나 중앙집권체제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소임보다 향사(鄕射禮)·향음주례(鄕飲酒禮)를 맡은 기구였으며, 향촌 내의 불효·부재(不悞)·불복·불인·불인홍(不賁恤)한 자 등 향촌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통제하여 향촌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 그 성격도 변질되어, 처음에는 관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아어(貳衛)라 하였던 청사가 19세기에는 관아 구내에 있게 되었으며, 초기 수령에 대한 규제력을 가졌던 유향소는 수령 보좌역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였다.

과 보, 도리, 서까래 그리고 포 부재만 다시 쓸 수 있을 뿐 토공사와 미장공사 그리고 내부 마감공사는 새로 해야 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토공사는 공역 자체가 비탈진 산기슭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절토를 하고 파낸 흙을 버려야 했으므로 전토처리로 많은 일품이 소요되었다. 바로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단양 현감을 보좌했던 육방관속 향리(鄕吏)²⁾들과 유향소(留鄕所 후일 향청으로 변경됨)³⁾에 모인 재지사족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향교의 이축은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 수령인 그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이런 일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을 지방 토호사족(土豪士族)들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사안임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향교는 신축되지 않고 이축된 것이다. 그들은 왜 단양향교를 이축했던 것일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는 이런 질문 자체가 나 자신을 사료부족이라는 수직적 사고로 이를 몰아넣고 있는 함정임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실 교과서적인 수직적 사고로 이 난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이미 낭패를 자초하고 있었다.

역사가 사료중심으로 과거를 읽는 일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나온 답사가 오히려 그 속성에 되팔려 길을 잃고만 셈이다. 말이 고증이지 사료를 읽는 것도 한참 추리작업에 불가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내가 미리 예견치 못한 탓이기도 했다. 내심으로 아이쿠 하는 비명과 함께 향교답사는 초반부터 판독 불가라는 불가항력에 열 혼을 빼앗기기에 충분했다. 일이 난감해 진 셈이다. 이번 답사는 곡절도 무던하다는 생각에 묶여 시간모르고 양가조춤하게 서 있던 나는 힘없는 발걸음에 이끌리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만약 상황을 자세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풀어온 퍼즐의 문맥이 어그러짐은 물론이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한 역사장작극으로 지목받기 십상이었다. 이런 화근을 난데 없이 뒤 짚어 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발걸음을 따라 무겁게 끌려 오고 있었다. 내리막 경사에 밀려 경황없이 재촉하던 발걸음이 차츰 안정된 호흡의 걸음으로 바뀌어가자 나는 이 발상 자체에 잘못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차츰 호흡이 길어지면서 좀 더 자세히 당시 정황을 근거로 현장을 곰씹어 본다면 역사적 문맥을 잡아내는 것쯤은 예사로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아까와는 정반대의 또 다른 시각을 지닌 추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 자신에게 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단양향교를 이축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신축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역으로 이문제의 해법을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연구하면서 만약 어떤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었으나 건축의 역사인 경우 공간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으므로 일반 역사와 좀 달리 가치규명을 위하여 가상현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차이를 갖고 있었다. 사료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유의 수평적 사고가 절실했던 이 마당에 구태여 전통적인 역사연구 방법을 결벽스럽게 고집하며 가릴 필요는 없었다. 거꾸로 읽는 건축역사, 역설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생각이 품어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다.

우선 향교가 두 개가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하방리의 것은 다른 기능의 건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 역시 그들은 이미 향교 이축이라는 역사적 귀결을 선택한 상태이므로 모든 추론은 이를 근거로 시작되어야 했다.

그들은 왜 향교를 새로 짓고 기존향교를 서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했던 것일까. 단양향교 이축에 관한 궁금증 가운데 가장 풀기 힘든 난제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무렵 글썽케나 읽는 선비라면 누구나 서원의 필요성을 수긍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경제적인 면으로나 시대 흐름으로 볼 때 서원 건축으로의 용도변경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했다면 그 속에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이점에 대한 추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했다.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그가 이곳에 현감으로 부임하기 6년 전, 1542년 죽령너머 풍기 군수 주세붕이 순흥 땅에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서원운동 벌릴 때 그는 재정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던 사실을 당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성균관 대사성이 된 퇴계 이황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비단 그만 잘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재너머 풍기지방 토호사족과 교분을 트고 지냈던 이 지역 유림들도 알게 모르게 잘 알고 있었을 것은 미루어 짐작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서원은 건축 하는 일보다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뒤 따른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그들로서는 하방리 향교를 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일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향교⁴⁾는 좀 다른 입장에 있었다. 이미 백 여 년 전 태조의 교육정책을 이어 받은 태종(太宗)⁵⁾은 재위 13년(1413년) 각 향교마다 5~7결(結)의

4) 고려 말 안향(安祥) 등의 학자에 의해 수입된 성리학(性理學)은 조선의 건국이념이었으나 불교가 대중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 국초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집권세력은 유교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하나가 불교 배척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유교의 대중화였다. 간단히 말해서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으로 유교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조선정부는 향교의 본격적인 발달과 체제의 완비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구한말 1894년(고종 31)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어서 1900년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군수 등이 관장토록 하였다. 1918년 조사된 바로는 당시 향교의 총수는 335, 소관토지는 48만 평이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 충당하였다.

5) 태조(太祖)는 즉위 원년(1392년)에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폐(興廢)로 그 지역 수령의 능력을 가늠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향교 설치를 강조하였다. 이어 태조 7년(1398년) 성균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성균관과 병행할 지방교육기구 향교의 설치를 재차 촉구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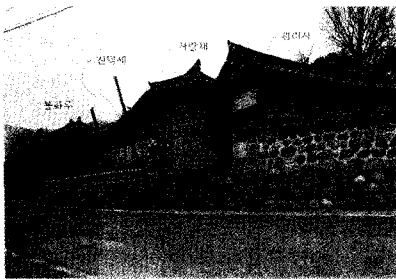
6) 조선시대에는 성균관과 4학(四學), 지방의 향교 및 사액서원(賜額書院)에 학전 또는 학교전이라 하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영조 때는 그 내역을 규정하여 성균관에 400결(結), 주(州)·부(府) 향교에 각각 7결, 군(郡)·현 향교에 각각 5결, 사액서원에 3결을 지급하였다. 서원 설치 뒤에는 3결의 서원전(書院田)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들 학전은 공전(公田)으로 면세전이었으나, 사액서원이 아닌 일반서원의 경우 지급된 3결에 대한 1.5결만 면세대상이었다. 또한 조정의 감찰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향교전은 그 지방 수령의 감찰을 받았으며, 성균관과 사학은 예외였다.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유지관리비용을 마련토록 함으로서 유지관리에 별 어려움과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원은 학전⁶⁾을 지닌 향교와 달리 재정적 배경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퇴계 이황과 단양유림이 당시 주세봉이 벌린 서원운동에 참여하기보다 향교 이축을 택한 것은 불 보듯 뻔 한 이치였다.

또 다른 측면은 그가 을사사화를 당한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원으로의 용도변경을 거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ں 사실이다. 을사사화란 1545년(명종 즉위년) 왕실의 외적인 대운(大尹)과 소운(小尹)이 권력쟁탈전을 벌리는 바람에 사림(士林)이 화옥(禍獄)입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사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여파가 계속되어, 그가 단양현감으로 부임하기 일 년 전, 1547년 9월만 하더라도 문정대비의 수렴청정과 이기 등의 농권을 비방하는 뜻의 벽서가 발견되자, 봉성군 송인수 등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언적 등 사림 20여 명이 유배당하는 정미사화가 또다시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듬해 부임하던 해 흥문관박사 안명세(安明世)가 을사사화 전후의 시정기(時政記)에 윤임을 찬양하였다 하여 사형되었던 것이다. 그는 을사사화 이래 윤원형 일파의 음모로 화를 입은 사람의 수가 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선비의 피를 먹고 자란 사람이 봉당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사회의 피해 당사자였던 그가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상방리에 있던 향청⁷⁾의 향관들의 움직임, 향약⁸⁾과 동계⁹⁾를 보는 그의 시각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운동은 자칫하면 정치적으로도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향교이축이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것이다.

성군관에서 잔뼈가 굵은 퇴계 이황이 이축(築移)한 단양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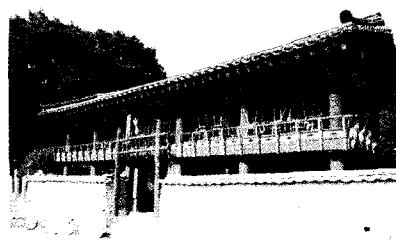
(그림 11) 단양향교 명봉당 일괄사진 2010년

이런 저런 생각에 짓눌려 꼬박 오백 삼십 보 걸음을 걸어오자 향교 입구에 다 달았다. 차라리 갈등을 달랜 걸음이라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성 싶었다. 오백 삼십 보를 걷는 동안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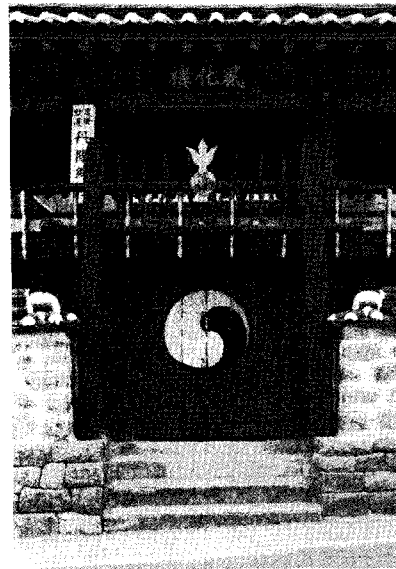
도 옆을 쳐다 볼 여유가 없었으나 내리막길이 오른편으로 접어들고 산비탈에 늘어선 노송이 모습을 드러내자 곧 향교입구에 당도

하였다. 도로변에 바로 맞닿은 네 칸 물림의 계단석을 밟고 봉당에 올라서자 정면 5칸 측면 2칸 맛배 지붕을 한 초의공의 2층 문루가 눈앞에 들어 닥쳤다. 이 건물에 바로 단양향교의 주 진입로인 풍화루였다. 숨을 가다듬고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니 어간에 물린 대문 돌쩌귀 사이를 들여다보니 명륜당 앞마당에서 튀어 오른 햇빛이 누아래 18개 기둥을 비치고 있어 바다는 생각보다 습해 보이지는 않았다. 대문 좌우로 향교 일곽을 둘러싼 나지막한 담장 그리고 대문 바로 앞에 주변머리 없이 홍살문이 바짝 코를 맞대고서 있다.

원래 이 홍살문을 제대로 만들어 세우려면 장주를 깎아 향교 문루에서 이삼 백보 정도 떨어진 곳에 세우는 것이 일반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단양향교의 그것은 너무 가깝고 규모도 작아 격식에 걸맞지 않았다.



(그림 12) 풍화루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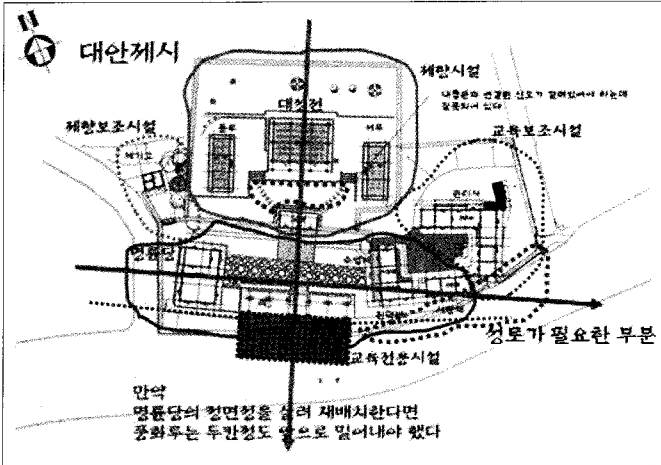
(그림 13) 단양향교 출입문

누문(樓門)이 잠겨 있는 탓에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십 여보 거슬러 오른 도로면에 작은 출입문이 있음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서 보니 관리사에서 사용하는 일각대문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서 대문간에 들어서자 한 눈에 40여 평 남짓한 마당을 가 자형 관리사와 고주를 세워 만든 퇴칸에 마루를 놓은 수업제 그리고 툃마루 없는 통칸으로 방을 꾸민 진덕제와 사랑채가 만든 L 자형 동제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네모난 각 기둥 위에 납도리를 짜 올린 도리 집에 둘러싸인 □ 자형 그늘진 마당을 가로질러 중문을 열어젖히자 내삼문을 사이에 두고 대성전과 함께 산비탈에 걸터앉아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통적인 향교배치가 한 눈에 들어온다. 문묘 하단에 구성된 학사전용 공간인 이곳은 품

7) 원래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군(郡)·현(縣)의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鄕吏·衙前)의 악패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여러 차례 증폐를 거듭하다가, 1489년(성종 20)에 부활되어 향임(鄕任), 혹은 감관(監官)·향정(鄕正)의 임원을 두게 되었는데, 이들 임원은 주(州)·부(府)에 4, 5명, 군에 3명, 현에 2명의 정원을 두었으나 후대에는 창감(倉監)·고감(庫監) 등의 직책이 생겨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차츰 이들은 지방질서 유지와 향촌교화의 달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점차 벗어나 비리가 속출하자 1606년(선조 36)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고 지방수령 경제의 역할을 담당하던 경제소(京在所)를 폐지하여 유향소는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수령규제에서 수령보좌역으로 기능이 변질되었고 좌수(座首)임명권도 수령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유향소의 명칭을 향청 또는 이어(貳衛)라 하였으며 좌수는 수령의 수석보좌관이 되었다. 효종 때부터 향청좌수는 향리로 격하되었고 향청은 비향원(非鄕員) 향족이 담당했다. 우두머리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座首: 1894년 이후 鄕長라 하여 선거로 추천된 자를 임명하였는데, 좌수는 풍속 교정·향리규찰·정령시달(政令示達)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러나 향청은 향민을 대표해서 지방관을 감시할 소임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 조선 초 설치된 유향소(留鄕所)를 임진왜란 이후 향청이라 하였다.

8) 지방 사족들이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규약으로 향약의 4대 덕목은 덕업상권, 예속상고, 환난상휼, 과실상구이다.

9) 향약과 비슷하나 다른 점은, 향약이 광범위하게 적용된 데에 비하여 동계는 동(洞)단위로 만들어진 자치 규약이라는 것이다.



(그림 14) 단양향교 배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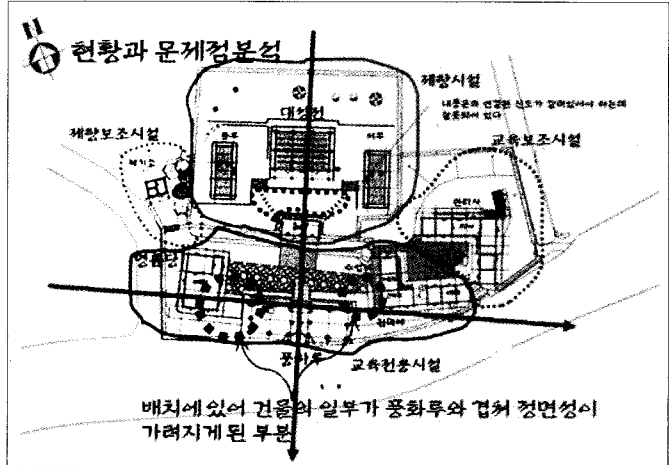
화루가 등고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늘어진 까닭에 중심건물인 명륜당은 서편에 동체에 해당하는 수업제와 진덕제와 50여보나 멀리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통적인 향교배치를 지닌 단양향교 배치를 분석해보면, 한 가지 의지스러움이 있음을 알게 된다. 정상적인 문묘의 배치라면 당연히 명륜당은 대성전과 함께 남북축에 자리했어야 했다. 평지에 전묘후학으로 세워진 성균관이나 경사진 산비탈에 전학후묘의 법식으로 지은 대부분의 지방향교 모두 남북축을 중심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였다. 강릉향교의 경우 전학공간의 법식을 지키기 위하여 명륜당을 루정으로 지을 정도였으므로 유림들 사이에 이 법식에 대한 집념과 열의는 실로 대단했다. 그런데 단양향교의 그것은 이러한 관례에서 벗어나 두 건물을 서로 직교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짐작한 대로라면 대성전과 명륜당은 동일 축선 상에 있었어야 했겠지만 워낙 협소한 대지조건이라 단양향교는 당초부터 이 기본적인 법식을 모두 무시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공역을 주관했다고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퇴계 이황이 아닌가. 그는 청년기를 성균관에서 거의 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으므로 이러한 배치 법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부지가 협소하여 배치의 모순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가 문묘 배치의 기본원리를 무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어불성설이었다. 오히려 그는 이 법식을 고집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으므로 대성전과 직교한 명륜당의 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대의 기법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뭔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변형이 일어났음이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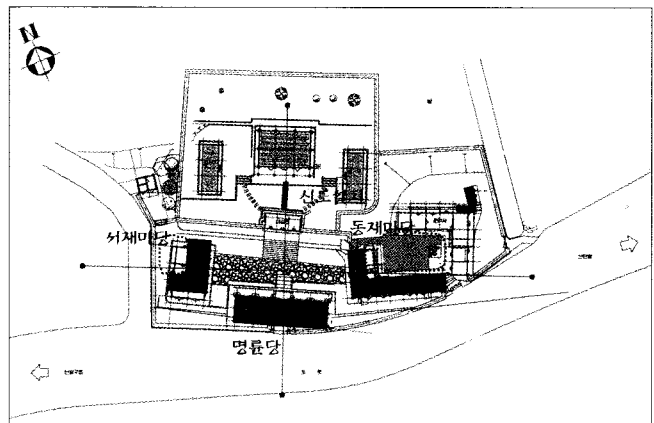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마당 한 가운데서 동제와 명륜당¹⁰⁾을 바라보면 두 건물 모두 측면의 일부가 풍화루 모서리에



(그림 15) 단양향교 배치복원도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특히 명륜당은 중요한 강학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의 정면성을 확보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명륜당 남쪽 모서리 기둥 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도 어기려하지 않는 건축 배치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심각한 모순이었다. 물론 나름의 속타는 사정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눈에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풍화루가 지나치게 북쪽으로 올려져 물려있기 때문에 명륜당과 동제 두 건물 남쪽 기둥 일부가 모두 가려지게 되어 외부 공간 자체의 품격이 떨어져 보였다. 더구나 현재 명륜당 자리는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부지가 협소한 곳이다. 그런 까닭에 모서리 부분의 중첩에 의한 정면성 훼손은 명종 후기 건립된 명륜당에서 더 심하게 일어났다. 만약 이러한 모순을 감안하여 제대로 배치했다면 명륜당 자리는 서제로 풍화루 자리는 명륜당이 자리 잡았어야 했다. 따라서 이곳은 명륜당이 자리하기보다 서제를 세우는 것이 더 어울리는 공간 조건을 지닌 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향교는 각 관아의 관할 하에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府)·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



10) 영조 때 두 차례 중수하였으며, 정조 때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1971년과 1977년에도 중수하였다. 전적은 판본 5종 42책, 사본 11종 15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향계절목》, 《정금록》, 《서제유안》, 《향교위전답안》 등은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는 교관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교육적 기능이 없어지고 불, 가을에 석전제제를 지내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7동 98명이다.

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모습에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해 보면 유생들의 숙소 겸 공부방으로 사용되었던 동제와 서제의 유생 수용능력은 단양향교의 경우 턱없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명륜당은 봉화루 위치에, 그 위치에 서제를 세우는 것이 마땅했다. 좀 더 고식(古式)의 배치를 따른다면 동제와 서제의 경우 각각 동, 서편에 마당을 만들고 유생들이 각각의 마당을 통해 출입토록 하는 것이 원본적인 향교 배치 법식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법식은 성균관의 동제와 서제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퇴계 이황이 이를 문제시했을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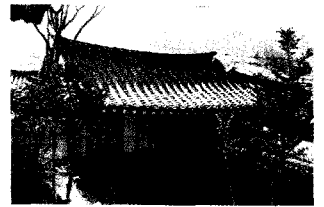
외삼문 앞 계단에 앉아 풍화루(風化樓)를 내려다보니 오른편에 명종 후기 건립된 명륜당과 제기고가 있고 외편으로 진덕제(進德齋), 수업제(修業齋), 사랑채와 관리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들은 모두 생활공간이었으므로 하등 불편 없이 주택으로 관아 건물로 구조를 개조하여 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건물들이다.

이제 외삼문을 열고 들어가면 배향공간인 대성전 권역에 들어가게 된다. 대성전과 그 앞뜰에 동서로 마주하고 있는 동무와 서무는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것은 선조 36~37년(1603~1604)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다. 신문을 중심으로 대성전과 동무와 서무 주위를 둘러싼 담장 안에 배여 있는 한겨울의 적막감과 함께 깊은 역사의 고요함 같은 것들이 문묘의 신성한 영역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신문(神門)을 마주하고 서 있는 정면 3칸, 측면 3칸을 한 초익공의 맞배집 대성전, 그 집 한가운데 공자를 주향으로 양편에 4성이 배향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성전 좌우측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 도리집, 맞배지붕을 한 동서 양무 속에 12현이 종향되어 있는데 이집은 마치 동제와 서제처럼 사람이 사는 집처럼 걸맞지 않는 툇마루와 온돌이 깔려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춘추로 석전제가 지내진다. 대성전과 동서무는 모두 성현의 위패를 모신 제사 공간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익량을 전실로 활용하여 제물을 나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까닭에 동서무 건물 바닥은 누마루의 온돌구조가 아니라 전돌이 깔려 있어야 했다. 현대 언제부터인지 동서무 건물은 동서제와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변형되고 말았다. 그나마 이러한 격식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성균관을 비롯한 지방의 몇몇 향교에 불과했다. 이미 살피본 것처럼 교육공간인 명륜당 권역은 학사관련 생활공간이었으므로 관아나 주거용 건물로 재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성전 권역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므로 향교는 규모의 절반은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냉철히 이 문제를 되짚어본다면 낡은 향교



(그림 16) 대성전



(그림 17) 서무



(그림 18) 풍화루에서 본 단양

를 이축하는 것보다 신축이 비용 면에서 더 합리적이긴 했으나 기존 향교의 재활용성이 부족해 경제성은 떨어졌다. 따라서 기존 향교의 건물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재사용하고 새로운 터에 향교를 신축한다는 것은 건축적으로도 무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었다.

이곳에 8개월간 머무른 퇴계 이황은 현감이었으나 그는 3년 전 만해도 또 다른 세계 성균관을 움직였던 대사성이기도 했다. 그는 정2품의 품계를 지닌 대사성을 지낸 사람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성균관을 비롯한 오부학당에 이르기까지 당시 조정의 교육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

풍화루에 올라서자 한눈에 단양은 남한강 상류의 현으로 한 도회지를 이룬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품에 안긴 단양향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유림의 품속에 존재하는 작은 세계이자 사람이 드나들던 도시이기도 했다. 한차례 격랑에 쓸려나가 듯 생각을 토해놓자 앞길의 근심도 적어진 것 같아 한시름 놓게 되었다.

자자드는 숨결사이로 멀리 하방리와 상방리 주변으로 산과 산이 겹쳐 둘러있는 것이 보인다. 내 눈길이 산마루에 올라서면 그 너머로 또 다른 산이 겹겹이 가로막았다. 벌써 산세의 생김새가 소백산줄기임을 알리듯 힘차고 역세 보였으며 외줄기 남한강이 거세고 깊숙한 산줄기를 파고 돌며 서울로 흘러가고 있었다. ■